

4강

세경본풀이

- 오곡 씨와 농경의 유래, 땅에 디딘 삶을
돌보는 '세경의 덕'

세경본풀이

- 오곡 씨와 농경의 유래, 땅에 디딘 삶을 돌보는 '세경의 덕'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1. 오곡 씨와 농경의 유래, 세경본풀이

짐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부자로 잘 살아도 오십이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 짐진국 대감은 얻어먹는 거지도 아이를 낳아 웃으며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하루는 동개남 중이 시주를 받으러 집에 온 것을 계기로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리고는 합궁일을 받아 딸을 얻었다. 자칭하여 나온 아기이니 자칭비라고 이름 지었다.

자칭비는 열다섯이 되어 어느 날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글공부하러 내려오던 하늘옥황 문곡성 아들 문왕성 문도령을 만났다. 자칭비는 남자로 변장하여 남동생처럼 꾸미고는 자칭도령이라고 하면서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하러 갔다. 함께 공부를 한 지 두 해가 지나가자 자칭비는 문도령이 자신이 여자임을 알아차릴 것을 염려하여 피를 내어 모면하였다. 삼년이 되니 하늘옥황에서 문도령에게 편지를 보내 서수왕아기에게 장가들라고 하였다. 자칭비도 글공부를 그만두기로 하고 문도령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못에서 목욕을 하며 자신이 여자임을 문도령에게 알렸다.

문도령은 자칭비의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증표를 주고 하늘 옥황으로 올라갔다. 자칭비는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을 기다렸다. 자칭비는 하루는 게으른 하인 정이엇인 정수남이에게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오라고 하였다. 정수남이는 산에 올라가서 일은 하지 않고 소와 말을 모두 잡아먹고 옷과 물건을 도둑맞은 채 돌아와서는 자청비에게 문도령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자청비는 정수남이와 함께 문도령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자청비를 범하려는 정수남이의 여러 수작을 꾀를 내어 모면하고 결국 정수남이를 죽였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정수남이를 죽였다고 말하고 부모가 화를 내니 남자로 변장하여 다시 집을 떠났다.

자청비는 도중에 아이들에게서 부엉새를 얻어 서천꽃밭에 새를 던져둔 뒤 황세곤간을 만났다. 황세곤간은 자청비에게 서천꽃밭에 나타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부엉새를 잡아주면 사위를 삼겠다고 말하였다. 그날 밤 자청비는 정수남이 혼정에게 부엉새 몸으로 환생하여 오라고 하여 새를 잡았다. 황세곤간은 약속대로 자청비를 말жат딸아기와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다. 자청비는 혼인하고서도 과거시험을 핑계로 말жат딸아기에게 몸허락을 하지 않았다. 과거보러 간다면서 서천꽃밭의 사람 살리는 꽃들을 챙기고는 죽은 정수남이를 살려서 집에 데려갔다. 부모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집안 망칠 딸이라며 다시 자청비를 내쫓았다.

자청비는 또 길을 떠나고 주모할망 집에 머물게 되었다. 주모할망은 자청비가 비단 짜는 솜씨가 좋으니 수양딸로 삼았다. 마침 주모할망이 문도령의 혼인에 쓰일 비단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이름을 새겼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짠 비단을 받고 자청비를 만나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자청비는 반가운 마음에 바늘로 손가락을 찔렀는데 문도령은 부정하다며 돌아가 버리니 주모할망은 자청비를 내쫓았다.

자청비는 중의 행색을 하고 시주를 다니다가 하루는 문도령의 명으로 자청비가 목욕하였던 물을 찾고 있는 하늘옥황의 궁녀들을 만났다. 자청비는 신분을 밝히고 그 물을 떠서 궁녀들과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나 증표를 확인한 뒤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문도령은 부모에게 서수왕에 장가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부모는 자청비가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한 뒤 며느리로 삼았다. 혼인을 이루지 못한 서수왕 따님아기는 화가 나 결국 죽고 새의 몸에 환생하였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보쌌하려고 하였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서천꽃밭

말갯딸아기에게 가서 선보름을 살고 자기와는 후보름을 살자고 하며 문도령을 보냈다. 문도령이 돌아오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궁 안의 모락을 알리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문도령은 그만 마지막에 웨눈백이 할망의 술을 마셨더니 죽어버렸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데려오고 살아있는 듯이 꾸며 보쌈하려던 이들의 수작을 물리쳤다. 이어 서천꽃밭의 꽃을 따다 문도령을 살렸다.

이때 마침 천자국에 난리가 생기니 자청비는 서천꽃밭 수레멜망악 심꽃으로 난리를 막았다. 천자왕이 땅을 내어주려 하자 자청비는 오곡 열두 신만곡을 주라고 하고는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인간세상에서 정처 없이 배고파 떠도는 정수남이를 만나고는 정수남이에게 먹을 것을 준 이에게 대풍년을 만들어주었다. 자청비는 메밀 씨를 잇은 것을 깨닫고 뒤늦게 옥황에서 다시 씨를 받아왔다. 문도령은 상세경으로, 자청비는 중세경으로, 정이엇인 정수남이는 하세경으로 들어섰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 **자청비** : 짐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절에 정성을 드려 낳은 딸. 문도령과 만나 인연을 맺은 뒤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혼인에 이름. 나중에 죽은 문도령을 살리고 천자국의 난리를 막은 뒤 천자왕으로부터 오곡의 씨를 얻어다가 중세경이 되어 인간 세상에 농사를 관장함
-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 : 자청비를 만나 인연을 맺은 뒤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혼인에 이름. 나중에 자청비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상세경이 됨
- **정이엇인 정수남** : 자청비 집의 하인. 자청비를 희롱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다시 자청비의 의해 살아난 뒤 나중에 인간 세상의 하세경이 됨
- **서수왕 딸아기** : 문도령과 혼인할 사이였지만 파혼을 당하자 막편지를 불살라 먹고는 자결한 뒤 새의 몸에 환생함
- **황세곤간** : 서천꽃밭을 관리함. 자청비가 꽃밭의 문제를 해결하자 사위로 삼음
- **황세곤간 딸아기** : 남장한 자청비와 혼인함

- **주모할망** : 자청비를 수양딸로 삼았는데 자청비와 문도령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청비를 내쫓음
- **문도령의 부모** : 자청비가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결국 며느리로 삼음

세경본풀이는 장대한 서사내용을 가지고 있는 신화이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가운데서도 초공본풀이, 차사본풀이와 더불어 긴 구연 시간을 자랑한다. 세경본풀이는 여러 주인공이 등장하여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사건 전개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정이었던 정수남이의 역할도 눈여겨 볼만하다. 자청비의 여성 영웅적 면모가 두드러지고 결국 농경신이 되는 내력을 담고 있다. 혼인(婚姻)과 관련한 일부 풍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활용된다. 큰굿뿐만 아니라 마을에 따라서는 영등굿, 잠수굿 등에서도 ‘요왕세경본풀이’ 라는 이름으로 구연된다. 현재 문화콘텐츠 관점에서도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사진 4> 세경본풀이



<사진 5> 세경본풀이(테우리청 지사권)

2. 땅에 디딘 삶을 돌보는 ‘세경의 덕’

[농경 관장]

세경본풀이는 오곡 씨의 유래와 농업, 목축업 등 생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실 세경본풀이의 대부분 서사는 농경과 관련해 특별히 전개되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청비가 대감 댁의 자식이고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점과 그 스스로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도 없다. 문도령도 하늘옥황에 속하는 귀한 존재이며 직접적인 농사활동을 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자청비가 열두 신만곡 오곡 씨앗을 가지고 내려오는 농경신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풀이에 드러난 애정관계의 내용들이 여성으로서 자청비의 농경신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한다.

문도령은 하늘의 존재이므로 농경에 반드시 필요한 천체 기후(비, 태양 등)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고 상세경을 맡는다. 자청비는 실질적인 농경신으로 변란을 막아내는 공로를 인정받아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중세경을 차지한다. 정수남이는 칠월 백중에 마블림을 받아먹는 하세경, 즉 목축신으로 좌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풀이에서는 상·중·하로 위계적 질서로 나누어져 있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이것들은 모두 하나로 조화가 되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청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도 와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태양도 내리쬐어야 한다. 농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가축들이나 반농반목(半農半牧)의 상황에서 우마의 증식도 중요한 문제이다. 제주 땅의 대표적 농사법의 하나인 ‘바령팻’ (糞田)을 생각한다면, 중세경인 자청비와 하세경인 정수남이가 현실생활에서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잘 상상할 수 있다.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결합이 서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나중에는 농경신의 지위에 나란히 매겨진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자청비는 칠월 열나흘에 하늘로부터 오곡 씨앗과 열두 신만곡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농경의 기원이 드러난다. 이때 메밀 씨는 잊어버리는 바람에 하늘로 가서 다시 가져왔다고 한다. 메밀의 생육이 다른 작물보다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생태환경도 본풀이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지상에 내려와 굶주리는 정수남이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밥을 준 늙은이에게는 풍년을 주고, 밥을 주지 않은 이들에게는 흉년을 일으키는 모습은 공동체의 유대까지 생각하게 한다. 농경생활에서 서로 돕고 보살피는 행동들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본인 셈이다.

제주 무속신앙에서 세경본풀이를 구연하면서 ‘먹은 이도 세경의 덕, 입은 이도 세경의 덕, 행궁발신 하기도 세경의 덕, 세경 땅에 집을

지어 살고, 죽어 세경 땅에 업토감장 하는 일’ 이라고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한마디로 세경본풀이는 땅에 디딘 인간의 삶을 돌보는 이야기다. 의식주 걱정 없이 여러 생업활동에서 안정적인 생산물을 얻으며 몸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수남이와 목축]

자청비는 문도령과 여러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한 그만큼 자청비가 정수남이와 가지는 관계도 만만치 않게 전개된다. 정수남이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중간에 끼어들어 자청비를 겁탈하고자 애를 쓴 존재다. 비록 자청비의 하인이지만 엄청난 식성과 노동력을 겸비한 인물로 말과 같은 가축의 이용법에 대해서도 능통하다. 자청비의 부모는 시집가 버릴 자청비보다도 부릴 수 있는 하인인 정수남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정수남이는 문도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식하고 더럽고 야성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는 자청비라는 존재와 성적행위를 하고 싶은 본능적인 존재이다. 그가 자청비와 함께 산으로 가서 한 행위는 자청비와 문도령이 따듯한 방 안에서 ‘병풍놀이’를 한 것에 견주면 더욱 야성적이고 노골적이며 생산적인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는 ‘세경놀이’에서 한 여자가 들판의 ‘어떤 놈’에게 ‘벽장동티’ 당한 것과 유사하기까지 하다.

정수남이의 못된 행동은 자청비를 겁탈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신분과 계급간의 차이를 뛰어넘거나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미래에 장차 예정된 농경신과 목축신의 뿔 수 없는 관련성을 암시한다. 본풀이 후반부에 상·중세경이 내려와 보니 정수남이가 밥도 못 먹고 지내는 것을 보고 자청비는 그를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살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는 분명 이어져 있다.

정수남이는 평소 농업생활을 실현하고 목축기술을 가진 전문가였으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격이었다. 농업 풍요와 관련된 하늘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문도령이 상세경이 되었다면, 자신은 농경보다 하위로 여겨지거나 또는 농경의 보조적인 분야로 간주되던 목축을 맡는

신격으로 좌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청비와 일정한 정도 성적교감을 나누고자 한 면모를 보임으로써 자청비의 농경신적인 능력을 자신도 일부 공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곡물의 번식만큼 우마의 번식도 당시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다.



〈사진 6〉 목축업(테우리, 제주학아카이브)

[자청비의 여성·문화 영웅적 성격]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문도령과 만난 뒤 문도령과 함께 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글공부를 하러 떠나는 것이나, 글공부 과정에서 여성임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지혜 등도 돋보인다. 자신에게 닥친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고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변란을 진압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좌정할 것을 정하는 것들이 당차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비단을 짜거나 농사와 관련하는 등 문화영웅적인 모습까지 보여준다.

[세경놀이]

세경본풀이는 ‘세경놀이’라는 굿놀이와 관련이 있다. 세경놀이는 세경신에 대한 놀이의례의 성격만이 아니라, 풍농을 위한 유감주술적인 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밭에서 성적행위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팽두리를 낳고, 이 팽두리가 밭을 일구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임으로써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경놀이에서는 씨뿌리기, 밭 다지기, 김매기 등 제주도에 농사를 짓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곡식을 거두고 이를 집안에 들여놓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집안에 풍요가 깃들기를 소망한다. 여러 종류의 제주도 민요(노동요)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글은 제주 신화학교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



<사진 7> 세경놀이(김수남 사진)



<사진 8> 세경놀이(김수남 사진)